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말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잠언 16:3)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이종국

제5회 충현올림픽 '뛰자 퍼치자 예수사랑'

올림픽 앞으로
한 주일

각 팀 조직 완료하고 준비에 돌입

각 팀 단장 출사표, 우승에 대한 강한 의지

유아에서부터 노년까지 전 교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준비

충 현교회 온 교우가 모여 치를 충현올림픽이 앞으로 한 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따라서 각 팀별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계획 및 준비에 여념이 없다.

각 팀별 조직이 완료되면서 각 팀은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각 조직을 활발히 운영하며 매주일 또는 주간 중에 모여 올림픽의 모든 내용을 살피며 각 팀에서 담당할 내용을 살피며 준비하고 있다. 이미 8월 13일(주일)에 결정한 각 팀별로 주일 오후에 연합모임을

갖고 경기종목에 따른 선수선발, 연습, 응원 연습 등을 계획하며 막바지 열심을 다하고 있다.

선교관 301호실을 본부로 정하고 매 주일, 주간중 모임을 가지고 마지막 점검을 해나가고 있다. 따라서 당일에 발생할 모든 사항들을 시간별로, 경기별로, 각 팀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나가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본부는 그동안 공모해 왔던 충현올림픽 표어도 '뛰자 퍼치자 예수사랑'으로 결정했고 피켓절도 윤성해 양(22세, 제12-2교구)으로 결정했다.

준비위원회에서 특별히 준비한 것은 전 교인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런 면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준비위원회는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유아에서부터 초등6부까지는 박 터트리기, 청년, 대학, 중고등학생을 위해서는 폐거리 축구 및 변외경기로 축구, 농구, 배구, 피구 등을 준비했고 또한 중고등학생들의 릴레이경기, 청년·대학생이

중심이 되어 펼칠 줄다리기 등 힘있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많이 준비하여 전교인이 함께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랑부와 예배다부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한편 대학부에서는 당일 매점운동을 맡아 다양한 메뉴와 최상의 서비스로 전 교인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준비를 해나가고 있어 기대해 볼만한 매점이 될 것이다.

본부나 팀이나 각자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모습이 돋보이는 이번 올림픽의 준비는 마무리되어져 간다. 문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가 문제이다. 전교인 올림픽이기에 어린이부터 학생, 대학,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참여할 때 명실상부한 충현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팀 단장들은 출사표를 발표하고 우승에 대한 강한 의지들을 보였다. 이제 10월 3일 개회만을 앞둔 올림픽의 열기는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각 팀 단장의 출사표는 3면을 참조)

제4회 컴세미나 막 올라
회교권 목회자 35명 초청, 8박 9일간

제4회 컴세미나의 막이 올랐다. 금년 세미나에는 회교권 목회자 35명을 초청하여 한국 교회의 목회 현장을 보여주고 회교권 선교전략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목적으로 9월 20일(수)부터 9월 28일(목)까지 8박 9일간 충현교회당을 중심으로 열리게 된다.

지난 9월 20일(수) 오전 7시에 공항에 도착한 참가단은 곧바로 교회로 와서 인사와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휴식을 취한 후 수요일부터 예배에 참석하며 교회 앞에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9월 21일(목) 오전에는 컴세미나 교육을 위한 준비시간을 갖고 충신대학 예배에 참석하고 학교를 견학하고 오후 4시에 개회예배를 드림으로 본격적으로 세미나 일정에 들어갔다. 예배 후 세미나 전반에 관한 자세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저녁 6시부터 교역자, 장로, 선교위원회 임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리셉션(사진)을 가져 이들을 따뜻하게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9월 22일(금)에는 교구 구역예배, 가정집방 등을 참관하고 금요집회에 참석하여 간증을 하기도 하고 9월 23일(토)부터 오전 강의, 오후에는 순교자 기념관

및 민속촌 등을 견학했다.

오늘(9월 24일)은 교육부서를 탐방하여 간증을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전 중에 교육II부는 오후 시간에 탐방하게 된다.

주일 저녁찬양예배는 특별히 '회교권 선교의 밤'으로 정하고 컴세미나 참석자들이 특별찬양을 하고 설교도 참가자 중 Shehata목사(이집트, 중경노회장)가 하게 된다. 월요일(9월 25일)부터는 계속적인 강의와 분임토의, 전략회의 등으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번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27명(이준교 선교사, 김수련 사모 포함)으로 그중에는 중경교단장, 중경노회장, 현 교단장, 신학교 교장, 교수, 교단 총무 등 이집트의 주요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했고 수단에서는 3명(김영대 선교사 포함)으로 나일신학교장, 수단 복음주의 장로교단장 등이 참여했고, 터키에서는 5명(김원호 선교사 포함)이 참여하여 아랍권의 중요 교회지도자들이 참가하여 큰 의의를 더해주고 있다.

세미나는 9월 28일(목) 오후 9시 30분 김포공항을 출발하는 것으로 모두 끝나게 되어있다.



대통령 김영삼 장로 가족들과 함께 주일예배 참석 대통령 김영삼 장로와 영부인

손명순 권사 그리고 가족들이 지난 주일(9월 17일) III부 예배를 온 교우들과 함께 드렸다. 김영삼 장로는 대통령 취임 후 매년 성탄절 예배 때 외에 평상시 이처럼 나온 것은 드문 일이었다. 김영삼 장로는 주일예배를 무척 귀하고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당연히 주일예배를 참석하려 했으나 경호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할 수 없이 청와대에서 주일예배를 드려왔다. 취임당시부터 지금까지 외국 방문 같은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매주일이면 아들 내외와 손자, 손녀들이 청와대 관저에 모여 주일예배를 드려왔다. 주일예배는 주로 김창인 원로목사와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인도해 왔다.

III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김영삼 장로를 향하여 교우들은 애정이 담긴 따뜻한 박수로 김영삼 장로에 대한 지지와 관심과 환영을 보냈다.





중헌간단

● 시편 강해 5 ●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시 5:1-12)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침과 조작과 속임수가 많은 세상입니다. 사회과학에서는 인간의 가치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의 행동 같은 이런 것들을 거의 마음대로 만들어냅니다. 또 인간의 가치관이라는 것이나 행동도 대중심리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히틀러나 치 정권이 심리학과 선전술에 의해서 대중들을 미혹케 하고 조작한 것을 잘 압니다. 지금 북한이 그와 같은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심리학과 선전술을 통해서 대중들을 조작하고, 또 속임수가 많은 그런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고 하는 시편 5편은 바로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또 그러한 환경들을 바라보며 탄식하면서 기도한 다윗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 내용의 요약

시편 5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3절까지는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4-7절까지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다섯 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8-12절에 보면 악인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의인들에 대한 보호를 기도하는 간절한 간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5편의 중심이 되는 요절은 11절입니다. 11절을 보면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 기도응답의 요청

첫째로 다윗은 개인적인 울부짖음에서부터 그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라고 했는데 여기서 '심사'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메디테이션(meditation)', 즉 묵상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묵상은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말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눅 11:13, 계 8:3).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던 경우가 있지만 그러한 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수정해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도록 인도해주시는 것입니다(롬 8:26).

둘째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

울이시는 분이십니다(1절). 우리의 왕이십니다(2절). 그리고 하나님은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3절). 아침은 가장 중요한 하루의 시작 시간입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시작하는 것만큼 안전하고 유익한 큰 축복도 없습니다.

3.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다섯 가지 유형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로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4절).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5절). 셋째로 행악자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5절). 행악자란 말은 악을 행하는 자란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죄 뿐만 아니라 악을 미워하십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자, 즉 거짓말하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6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앞에 기도할 때에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특별히 서원기도 함부로 하며 하나님께 부도내면 안됩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십니다(6절).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은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의 이름이나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의 집에 들어가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물론 집에서 기도해도, 직장에서 기도해도, 길을 가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주의 집에 들어가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셋째로 주를 경외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나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4.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의 보호에 대한 간구

(1)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가

8절에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 '주의 의'란 구원의 성취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의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해주십니다. '주의 길'은 바로

이런 의인들에게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불화살로 우리를 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는 큰 방패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과 많은 환난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피하면, 사탄마귀도 그 누구도 손 못댁니다



구원의 길이요, 천국가는 길이요, 시온의 길입니다.

(2) 우리의 원수인 악인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9절을 보면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갈고 저희 혀로는 아침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원수들의 정체는 첫째로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거짓말을 합니다. 신실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파멸의 세력으로 가득찬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셋째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갈고"라고 했습니다. 무덤이란 시체가 묻혀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열려지게 되면 거기에서 정말 보기 흉한 시체가 나오게 되고 시체가 썩는 독한 냄새가 납니다. 혐오감을 풍기게 됩니다. 넷째로 "저희 혀로는 아침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아침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아침하면 다들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데 넘어가면 안됩니다.

(3) 악인들에 대한 기도

10절에 보면 첫째로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시"라고 했습니다. 저희를 정죄하시라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둘째는 "자기 피에 빠지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 바로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또 배반자 압살롬을 도운 모사 아히도벨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자기 피에 자기가 넘어갑니다. 셋째로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배역자인데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사회인은 그 사회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면 제2의 기회가 없는 곳, 구원이 없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에 대해서 다윗은 저희를 심판해 달라고, 자기 피에 빠지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

님 앞에서 저들을 쫓아 달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5. 본문 시편 제5편의 요절과 결론

본문의 요절은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귀한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두번째로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히 기뻐 외치며", 주님에게 피하는 자는 주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세번째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를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은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롬 1:17).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의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인들에게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불화살로 우리를 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는 큰 방패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과 많은 환난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피하면, 사탄마귀도 그 누구도 손 못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전부가 이 속임수가 많고, 아침이 많고, 조작이 많은 세상 속에서 오직 주에게 피하여 보호함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길을 미리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지혜를 달라고, 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결재를 받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아침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으므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충현올림픽을 앞둔

각 팀 단장의 출사표와 조직

믿음팀(1·4·12교구)

화합과 단결과 일치의
신앙공동체로

송 환 창(장로, 단장)



우리는 황색들
품을 일으키면서
금번 제5회 충
현올림픽의 우
승을 차지하리
라는 확신(정금
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첫째, 올림

픽 표어가 바로 믿음팀(제1-2교구 김미
자 집사)의 작품이요, 둘째 올림픽의 꽃
인 입장식의 피켓걸이 바로 믿음팀(제
12-2교구 윤성해 자매)소속이고 셋째, 올
림픽 전반에 걸친 계획과 진행을 총괄하
는 기획분과장이 바로 믿음팀(제41교구
차신득 장로)소속이라 이만큼 깊은 관심
과 애정을 가진 팀이 따로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몸은 ① 성령이 내주하는 곳
이며, ②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③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만큼이나 육신의 훈
련도 소중히 한다. 그러므로 승패에 연연
하지 않고 오로지 천복과 건강증진을 도
모하면서 교회성장의 계기를 마련하여
화합과 단결과 일치의 신앙공동체의 한
마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단장: 송환창 장로
- 부단장: 김종규 장로
- 총감독: 최은덕 집사
- 경기별 감독:
박광래 오인근 한동규 홍시오 김신국
양한원 이광국 박병욱 안희정 이지걸
- 후원단장: 이부성 집사

(부: 오순도 정성교)

- 후원단원:
이승득 박창식 금호순 하혜인 임죽성
김상열 김경순 이득혜 김영수 정선현
정선교 조종철
- 선수동원요원:
유중요 이달옥 김진옥 유종석 정영래
김재운 정임순 반연숙 박인자 박종영
변금순 전경금
- 질서유지요원:
최준석 김용조 허만선 전옥순 류기명
이석목 박원화 김장용 홍원석 함철주
권혁진 유동수
- 기록 및 연락: 강신순 황용조 김만중

충성팀(2·11·13교구)

나가자, 겨루자, 이기자!

김 의 철
(장로, 단장)

나가자, 겨
루자, 이기자!
라는 응원구호
를 외치며 충성
팀은 제2·11·



13교구가 연합하여 녹색 깃발을 들고 울
은 길, 의의 길을 청장년 1500명, 어린이
900명이 하나가 되어 협동심을 발휘하르
로, 성도들간의 유대강화와 교회발전의
계기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
하여 충성! 충성! 충성!하기를 다짐하면
서 예수사랑, 충현올림픽을 달려 갑니다.

저희 충성팀은 총동원을 위한 동원분
과, 경기준비와 진행을 돕기 위한 경기분
과, 뒷바라지를 위한 봉사분과, 응원지원
을 위한 응원분과를 조직하여 각 전도회
와 교구 조직을 통한 성도들의 적극 참여
를 유도하고 각 분과별로 수차례의 모임
을 통하여 총력을 모아가고 있으며 특히
경기별 감독들을 작전 수립, 경기력 향상
을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또 후원단
에서는 우렁차고 질서있는 응원, 무엇인
가를 보여주지 위한 연습을 하는 등 만반
의 준비를 다하고 충현올림픽을 기다리
겠습니다.

- 단장: 김의철
- 부단장: 강모용 김영길 김재명
- 총감독: 이정우
- 경기별 감독:
전종익 고병국 박종규 이영환 김문섭
김성태 엄창근 전홍열 금호탁 김단용
윤석인 최성철 정청길 한홍연 강철형
서두현 권현신
- 후원단장: 김춘권
- 후원단원:
서영남 정명실 박경열 노순옥 김미자
이진규 임낙준 이국표 김재운 임규석
이정희 김정연 이화영 지인숙
- 선수동원요원:
장승규 박창서 이승구 강남식 박문태
김창관 이창영 박승길 고제승 강동화
송명상 이봉주 송태현
- 질서유지요원:
김남해 오재일 신진수 유상태 문경안
강진택 정상수 전태영 박일태 정상화
원용철 김낙홍
- 기록 및 연락: 김용산 정태명 이수자
박차용

사랑팀(3·5·10·14교구)

사랑팀의 헌신과 함께

김 은 호
(장로, 단장)

충현올림픽이 시작된지도 올해로 벌써



써 다섯 번째다. 온
교회가 함께하는
믿음의 경주! 주
님이 기뻐하시
는 사랑의 잔치
이다. 질서를 배
우고, 예수 안에
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

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선한 일이기
에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치뤄지는 정기
적인 화목의 장으로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적
색의 사랑팀은 3교구, 5교구, 10교구, 국
제교구로 구성되어 있다. 김 은호 장로님
을 단장으로 하여 4개 교구가 협력을 한
다.

이것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다. 금번
의 사랑 팀은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생
각하면서 사랑의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경기에서, 팀의 운영과 질서에서도……

인간은 상징할 수 있는 존재다. 동물
은 상징을 하지 못한다. 상징은 그 팀의
정신을 보여주며 그 정신으로 하나가 되
어 있음을 바라보는 것이다.

사랑팀의 정신은 무엇인가? 예수님
의 보혈이다.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
다. 박혀있던 담을 헐어 버린다. 잘못된
고정관념의 벽을 헐어버린다. 첫째로 이
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과 같은 인
종과 지역감정의 담을 허물었다. 둘째로
여자의 들과 남자의 들 사이에 있는 담,
곧 여자와 남자 사이에 있는 높은 성차별
의 담을 허물었다. 셋째로 남자 유대인
도, 여자 유대인도 들어갈 수 없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의 담을
허물었다. 이 말은 이 세상에는 특별한
신분, 특별한 사람이 따로 없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사람과 사람 사이
의 벽이 허물어지고 모두가 하나님에게
로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
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진리와 소망 가운
데서 사는 자유의 삶을 얻게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은 벽을 헐어버린다.
여기에는 어떠한 제약도 없다. 올림픽을
통하여 전세계가 자유와 평등 평화의 이
념을 추구하듯 제 5회 충현올림픽은 예
수그리스도의 평화의 재절을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갈 것이다. 특별히 예수님의 보
혈! 사랑팀의 헌신과 함께……

- 단장: 김은호 장로
- 부단장: 엄필성 윤성철 장로

- 총감독: 안동현 집사
- 경기별 감독:
이석영 고승균 김종선 이동명 김시주
임창식 이흥우 김영은 김달현 이장하
김희선 김기철 조영구 허 오 황인주
- 후원단장: 김명자
- 후원단원:
이창무 최정열 김명규 김선규 김지이
김지연 민희정 노혜선 염세영 장은정
김은주 왕승원 김춘순 김지훈 홍정화
김낙교 윤호진 이용재
- 선수동원요원:
진학래 김창국 김희선 윤석현 김태홍
양병진 이강근 신상수 최봉환 지상철
조종광 이인광 설명동
- 질서유지요원:
최만복 이인원 편무산 안지홍 조영구
조종선 유현숙 남영순 김은숙 신희순
노재희 이소균
- 기록 및 연락: 최경하 이동규 김종광

소망팀(6·7·8·9교구)

메달전선에 이상없다

조 선 근(장로, 단장)

이 날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던가. 천

국을 소망하듯이 우

리 팀은 우승에

대한 불굴의 신

념을 불태우고

있다. 메달전선

에 이상은 없다.

스포츠정신으로

정정당당하게 임

할 것이며, 결코 부끄

럽게 이기지 않을 것이다. 연습기간이 길
지는 않았지만 대신 경기 지도자들(총감
독과 감독들)의 치밀한 작전계획과 거기
에 수반되는 선발선수들의 기민한 움직
임, 땀이 있었다.

심상하고 열정적인 대학생들로 구성
된 후원단 역시 크나큰 자랑거리이다. 그
리고보면 후원상도 우리의 것. 이런 우리
의 힘은 6·7·8·9교구가 하나가 되어
기도로, 성원으로 밀기 때문이다. 아, 소
망팀의 승리! 저 환호하는 무리들의 소리
를 듣는가.

- 단장: 조선근 장로
- 부단장: 허대선 최대원 박영식 장로
- 총감독: 김영수 집사
- 경기별 감독:
마성락 전은배 장철환 최기홍 김광근
김동욱 정원근 임기채 박덕양 김환기
김영록 이영일 문광석 동방운 안창화
이만기 김승곤 오동환
- 후원단장: 김대현
- 후원단원: 이희재 이상근 하성두 최요셉
- 선수동원요원:
양종섭 권 철 박호용 강창식 석영식
이근수 엄기정 김용도 유종곤
각 교구 담당 전도사
- 질서유지요원:
정태두 조종환 장봉순 김점석 유우선
박종현 주원홍 이태식 강희찬 전용해
김환대
- 기록 및 연락: 박철구 권병철 김경희
박종용

토·막·소·식

◆ 탁아부는 오늘 교구 모임 후 탁아부실에서 교사월례회의 및 기도회, 교사훈련을 갖는다.

◆ 초등1부는 오늘(9월 24일) 글짓기대회를 연다. 제목은 ① 우리 선생님, ② 우리 교회, ③ 여름성경학교이다.

◆ 초등3부는 오늘 성경이야기 대회에 선을, 본선은 10월 1일에 치른다.

◆ 초등4부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잔치' (반별 장기자랑)을 10월 8일(주일)에 개최한다.

◆ 중등1·2·3부는 10월 28일 연합으로 '시와 찬양의 밤' 모임을 갖는다. 프로그램 및 성극이나 문학, 찬양, 기악, 조명, 음향 등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 중등2부는 9월 24일(오늘)에 작은 음악회와 초청전도집회로 모인다.

◆ 고등부의 연극부에서 공연하기로 한 나르테우스가 교회의 사정상 10월 셋째주로 옮기게 되었다.

◆ 새가정부는 오늘(9월 24일)에는 성

경퀴즈대회(요한복음 전장), 9월 30일(토) 야의예배, 10월 1일(주일)에는 성경암송대회를 갖는다.

◆ 장년1부는 오늘 성경퀴즈대회를 연다. 범위는 모세오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 장년2부는 10월 1일(주일), 12시 30분, 교육관 314호에서 읍기서 전장을 범위로 성경퀴즈대회를 연다. 장년2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 청년1부는 9월 26일(화), 7시 30분부터 명동대한투자금융 앞에서 청년1부전 회원이 동원되어 명동찬양전도를 실시한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와 참여를 부탁하고 있다.

◆ 에바다부는 오늘 예배 후 주기도문,

충현올림픽 준비 각 팀 교구연합모임

충현올림픽을 1주일 앞두고 각 팀에서는 마지막으로 교구연합모임을 갖고 전력을 정비하고 준비를 확인하는 모임을 오늘 IV부예배후 각각 모인다.

◆ 사랑팀(3·5·10·14교구)

오늘 IV부예배후
교육관 212호(유아부실)

◆ 소망팀(6·7·8·9교구)

오늘 IV부예배후
갈릴리홀

◆ 충성팀(2·11·13교구)

오늘 IV부예배후
본당

◆ 믿음팀(1·4·12교구)

오늘 IV부예배후
교육관 307호

실업인전도회에서 구인 구직 알선

실업인전도회에서는 사람을 구하는 기업이나, 직장을 찾는 사람에 대해 사람과 직장을 알선해 주고 있다. 필요한 사람은 연락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연락처는 전화 ☎ 552-8200, 교환 448번으로 하거나 교육관 112호로 직접 찾아오면 된다.

제4회 국제 컴세미나 기도 제목

9월 20일(수) 부터 ~ 28일(목) 까지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명령입니다.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바로 일라산을 섬기고 있는 모슬렘이며, 현재 가장 치열한 영적전쟁은 기독교와 모슬렘과의 싸움입니다. 충현교회는 회교권 지역에 선교의 불을 붙이고, 세계복음화의 열정을 일으키기 위해 회교권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목회자 37명을 초청하여 9월 20일(수) ~ 28일(목)까지 국제 컴세미나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에 컴세미나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충현의 가족들이 회교권 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는 귀한 목회자들에게 사랑의 선물(현물)을 드림으로 큰 위로와 기쁨을 주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접수는 사무국에서 합니다.

1. 강사와 책임을 맡은 일꾼들이 믿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2. 회교 지도자들의 박해 가운데서도 전파된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회교권 지역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여주소서.
3. 초청된 이집트(28명), 수단(4명), 터키(5명) 목회자들이 은혜와 성령충만으로 하나님의 큰 비전을 가지게 하옵시고,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회교권 복음화를 위해 순교의 피를 흘려 선교의 열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4. 컴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회교권 선교의 많은 장애물 앞에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회교권 복음화에 큰 일꾼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5. 금번 컴세미나를 통하여 충현의 가족들에게 세계선교를 위한 뜨거운 기도와 선교의 불을 붙여주소시고, 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되는 축복을 주소서.
6. 컴세미나 기간 동안에 좋은 날씨를 주시고,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불타는 소명의식을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7. 회교권 지역에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옵시고, 이렇듯 없이 빛도 없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소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하여주소서.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소서.
· 김창인 목사: 9/28(목) COME세미나 폐회예배 설교
· 신성중 목사: 9/25(월) 목회자 세미나 강의
9/26(화) COME세미나 강의
2.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시작 10분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3. 초청전도집회와 예수사랑 큰잔치 때의 결신자들이 등록자가 되게 하시고 등록자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인도자와 양육위원들과 교구, 지역, 구역에서 잘 양육하게 축복해 주소서.
4.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성케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소서.
5.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세계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금년에도 풍년을 허락하소서.
6. 제2교육관 공사와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설립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소서.
7. 해외목회자초청(COME)세미나(9월 20 ~ 28일)가 잘 진행되어 참가 목회자들이 회교권 복음화에 더욱 헌신하게 하시고, 충현올림픽(10월 3일)이 온전히 준비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치루어지도록 인도하소서.
8. 각종 재난과 수해를 당한 남북한의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이웃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함께 나누게 하시며 북한의 수해복구를 도울 수 있게 하시고, 이를 계기로 북한이 변화되게 하소서.

사도신경 외우기대회가 있다. 청년부, 장년부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 사랑부는 사랑부 예배시간에 함께 할 사랑부 찬양대를 조직하고 당회의 승인을 받았다. 인원은 30명이고 지휘에 손소영 선생, 반주에 오후연 선생이다.

◆ 교회는 충현동산의 본건물을 신축하기로 했다.

원래 계획은 충현동산 화장실, 사무실을 개축하려 했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본건물을 짓기로 했다.

본 건물은 2층으로 1층은 주방 10평, 사무실 6평, 홀 74평 등으로 90평, 2층은 주택25평, 화장실 15평, 기타 부대시설 20평 등으로 약 60평, 1,2층 도합150평 규모로 짓게 된다.

고등부 매일 오전 10~11시, 학부모 기도회

10월 14일 ~ 11월 22일까지, 40일간

고등부는 학생신앙지도와 대학입시를 앞두고 학부모 기도회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11시 사이에 베다니홀에서 갖고 있는 주간기도회에 10월 14일(토)부터 11월 22일(수)까지 매일 오전 10~11시 사이에 베다니홀에서 매일 기도회를 갖기로 했다. 인도는 교회내 부목사들이 한다. 또한 학부모 학생 연합 주일 기도회, 입시생을 위한 기도계획을 세워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학부모 기도회 일정표는 아래와 같다.

1. 주간 기도회
· 일시: 현재 ~ 10월 11일(수)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전 11시
· 장소: 베다니홀
· 인도: 한근수 목사(고등부 지도)

2. 매일 기도회(40일간)
· 일시: 10월 14일(토) ~ 11월 22일(수)까지: 매일 오전 10시 ~ 11시
· 장소: 베다니홀
· 인도: (교육위원회에서 별도로 지명)

3. 학부모 학생 연합 주일 기도회
· 제1차: 9월 17일(주일) 오후 3시, 복지관 지하1층 가나홀
· 제2차: 11월 12일(주일) 오후 3시, 복지관 지하1층 가나홀

4. 입시생을 위한 예배특별 안수기도회
· 11월 19일(주일) 주일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당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안수 기도회를 개강.

충현올림픽에서 대학부 매점 운영 최선의 서비스와 다양한 메뉴로

충현올림픽 때 대학부에서 매점을 운영합니다. 맛있고 저렴한 가격의 식사(김밥, 샌드위치, 커피, 떡, 전, 오뎅 등)와 음료, 빙과, 스낵 등 다양한 메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일부는 대학부 사역비로, 또 일부는 수해를 입은 북한주민을 돕는 일에 쓰입니다. 최선의 서비스와 준비로 섬기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